

한국사 Feel 콕! 학습지

대단원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지도교사	정석명
중단원	04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	차 시	26차시
학습주제	1) 사회 모습의 변화		
학습목표	✓ 일제 강점기 사회 모습의 변화를 식민 지배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 도시 성장의 이면에 농민 몰락과 도시 빈민층 증가가 있었음을 파악한다.		

1. 일제 강점기 사회 모습의 변화

- 1) 근대 도시의 발달
- ① 일제의 경제 침략과 식민 지배 정책에 따라 도시화 진전
 - ② 개항 후: (), (), ()과 철도·항만 건설에 따라 () 성장
 - ③ 일제 강점기: 식민지 공업화 추진에 따라 (), () 등 북부 지방에 공업 도시 성장, ()·()·() 등 대도시 인구의 증가
- 2) 도시의 변화
- ① 중심지: 새로운 () 형성, () 건설 → 일본인이 시가지의 중심 차지
 - ② 변두리: 빈민층이 거주하는 () 증가
- 3) 대중문화의 유행

형성	1920~30년대 (), (), () 등을 통해 서양 문화가 유입 → 서울 등 도시를 중심으로 대중문화 형성, 유행
내용	• 신문이 문화 행사와 스포츠 등을 소개, 『 』, 『 』 등 잡지에 계절에 따른 패션이나 화장법 등 소개 • () 상영, ()·()·() 등장, () 방송과 () 보급으로 유행가 등장 • 야구·축구·자전거·스케이트 등 ()도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 정착 → 일제는 대중을 일사불란하게 지배하는 훈련 수단으로서 스포츠 장려
특징	(), () 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

2. 도시 빈민과 농민의 삶

- 1) 도시 빈민의 삶
- ① 도시 빈민의 증가: 1920~30년대 ()와 함께 도시화의 진전, 도시 인구 증가
 - ② 도시 빈민의 형성: () 미숙련 노동자(막노동자, 지게꾼, 수레꾼 등)가 크게 증가, ()도 대부분 저임금의 단순 노동자
 - ③ 도시 빈민의 생활: 도시 변두리에 ()을 짓고 거주(토막민),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
- 2) 농민층의 분해
- ① 배경: () → 일본 토지 회사나 소수의 대지주에 토지 집중
 - ② 분해: 자작농과 자소작농 수 감소, 소작농 크게 증가, 소작농의 화전민 또는 도시 빈민화, 만주·연해주·일본으로 이주하는 농민 증가
- 3) 일제의 농촌 진흥 운동

배경	() 이후 농민층 몰락, 소작 쟁의 격화
목적	()와 ()
방식	빈곤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 ()과 ()을 강조하는 정신 운동으로 추진



곰샘이 드리는 참고 자료



¶ 모던보이와 모던걸

‘모던걸(Modern girl)’과 ‘모던보이(Modern boy)’는 1920년대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자본주의 문화와 생활 양식이 확산되고, 서울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당시 모던걸과 모던보이는 서양식 의복을 입고 전통적이지 않은 머리 스타일과 눈에 띄는 백구두나 뽕족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보여 주는 새로운 패션과 스타일은 전통적 생활 양식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낯선 풍경이었다. 시인이었던 박팔양(朴八陽)은 이들을 “의복, 언어, 동작은 물론이요 그들의 사고방식까지도 근대화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몹시 거리가 멀었다.”고 설명했다.

모던걸과 모던보이에 대한 낯섬은 호기심과 함께 혐오감도 포함하고 있었다. “모던한 생활”을 영위하던 모던걸과 모던보이는 문화적으로 시대적 첨단(尖端)에 서 있었지만, 사회적 모순과 퇴폐의 온상으로 비판받았다. 소설가이자 카프(KAPF)의 주요 인물이었던 박영희(朴英熙)는 이들을 “유산자 사회를 표상하는 유산자 사회의 근대적 퇴폐군”이라고 평했다. 모던걸과 모던보이는 근대적 삶의 양식을 보여 주는 긍정적 인간상이 아니라 퇴폐적이고 불량한 의미의 ‘못된 보이’와 ‘못된 걸’로 불리기도 하였다.

모던걸과 모던보이는 전통적인 삶의 형태가 부정되고 새로운 시대의 삶의 양식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문화적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이들은 자본주의와 도시화의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의 출현, 근대적 인간상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 도시의 발전

근대를 결정짓는 여러 특징 중 하나가 도시적 삶이다. 도시는 근대성의 상징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의 우리 사회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더불어 도시가 커지고 농업 국가에서의 전통적 삶이 도시적 삶으로 전환하던 시기였다. 근대적 정부 체계와 관료 제도가 정착하면서 철로와 기차역이 세워졌으며, 관공서와 가정집의 주거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뿐 아니라 도시 공간의 발전과 더불어 공간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한 관념도 바뀌었다. 이제까지 소규모의 동네에서 생활하는 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도시의 군중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과거에 누리던 안정감보다는 역동적이지만 복잡한 도시적 삶을 갈망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적 삶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 주기도 했지만 문화적 갈등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도시 공간의 시각 문화 역시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문맥 속에 위치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 도시는 시각 문화와 연결되어 변화한다. 초가집이 헐리고 서양식 주택, 교회, 미술관,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도시는 문화, 종교, 그리고 대중적 소비 생활의 중심점이 되었고, 신문, 잡지, 광고와 사진 이미지가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1930년대에 이르면 상점과 백화점이 시내 거리 변에 줄지어 들어서면서 광고, 쇼윈도, 네온사인이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 김영나, 『한국문화사』 21권, 국사편찬위원회 -

¶ 도시 빈민의 삶

의약의 은혜를 고루 입지 못하는 불쌍한 빈민을 위하여 모처럼 본사 주최로 여름철 무료 순회 진료를 하려던 계획은 경무당국의 간섭으로 중지하게 되었다. 본사의 본의는 아니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간절히 기다리던 지방 인사에게 무슨 말로 사과하겠는가. 오직 이것을 사실대로 보도해서 공과 과의 판단을 공평한 사회 인사들에게 맡길 뿐이다. 이에 대하여 경무국 이시카와 위생과장은 말하기를 『첫째 우리는 그 취지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총독부로서는 이미 위생적 시설을 충분히 설치해 두었다 생각한다. 각 도에 자혜의원이 있고 각 군에 공공의사를 둔 이상 특별히 순회 진료까지 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자진해서 시행할 일이지 어느 신문사의 계획에 따라갈 것은 아니다. 신문사에서 기어이 하고 싶거든 어떤 개업 의사든지 임의로 모셔와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총독부위원 의사를 데리고 가는 것은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동아일보』, 1924.7. -